

광산구 금고 선정 앞두고 치열한 경쟁

공정성·투명성 확보 간담회...경실련·주민자치위 등 참여 농협·광주·국민은행, 평가기준안 놓고 상반된 주장 대립각

광주 광산구의 구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융기관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면서, 향후 심각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광산구는 2019년 구금고 지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으로 소송에 휩싸이고 관련 공무원 등 3명이 사법처리 되는 흉악을 치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오는 12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구금고 계약을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3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등 3곳의 금융기관과 경실련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감사관, 구의원 등이 참여해 한 가운데 금고 선정과 관련한 평가 기준안을 놓고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3곳의 금융기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가항목에 '농협은행의 지역조합실적' 포함 여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농협은 "금고 선정시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금융업무 체계,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문 근거를 내세우며 "지역조합의 실적은 당연히 평가 기준안에 포함해야 하고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은 전국 지자체 금고를 농협이 대부분 맡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광주은행측은 "농협은행과 지역조합은 각각의 법인으로 서로 다른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만큼 지역조합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광주은행은 특히 "지역조합 실적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유리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크고,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는 광주고등법원 판례(2010년나 4294)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측도 "지역조합 실적 포함여부는 광주은행측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지점 수, ATM 설

치대수, 지역사회 기여실적 등의 유리한 부분만 합산하게 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서 "만약 농협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은행도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동일한 은행업무가 가능한 만큼 우체국 실적을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각 금융기관이 농협은행의 지역조합 실적 포함 여부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당락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 "어떤 기준안을 적용해도 3곳의 금융기관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금고 지정으로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산구 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으며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 돼 향후 4년간 구금고를 운영할 은행을 다시 지정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는 최근 20~30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열고 조직 혁신을 다짐했다.

MZ세대 공직자,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광산구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혁신 아이디어 발굴 제안

광주 광산구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1994년생) 공직자들이 소통과 배려, 존중이 넘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20~30대 공직자들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니어보드는 MZ세대 젊은 실무로 구성된 중역회의로 정책결정의 중요변수나 건의사항을 발굴·제안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9월 현재 전체 공직자의 64.4%가 MZ세대다. 광산구는 이를 중심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20~30대 직원 20명을 선발하고 4개 팀으로 '혁신 주니어보

드'를 구성했다.

참여 공직자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월간 정기회의, 비정기적 온·오프라인 활동, 조직문화개선 실천수칙 캠페인, 혁신행정 역량강화 아카데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개선 방안, 특목 튀는 정책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광산구 관계자는 "혁신 주니어보드가 당연시 여겨졌던 조직의 낡은 관행을 깨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움직이는 복지상담실' 운영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수완동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움직이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복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서비스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날 현장을 찾은 광산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기본 생활보장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과 서비스 내용을 안내했다. 광

산구는 향후에도 수완동, 하남동 소재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절차와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움직이는 복지상담실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한 번 신청으로 맞춤형 복지혜택을 안내받는 복지멤버십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월곡2동 토박이 파수꾼 "봉사는 일상"

노한복 광주자율방역단 회장 셀프 방역·재난 현장 찾아

광주 광산구 월곡 2동에서 지역 파수꾼 역할을 도맡고 있는 노한복 광주자율방역단 연합회장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광산구 월곡 2동 파수꾼으로 불리는 노한복 광주자율방역단 연합회장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방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노 회장은 63년째 광산구 월곡2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토박이로, 그동안 펼친 봉사활동만으로 무려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위해 조직된 광주자율방역단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셀프 방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합회장을 맡게 됐다고 한다.

앞서 노 회장은 월곡2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 회장은 독거노인 돌봄 등을 비롯한 안전취약지구 예찰활동, 재난 발생시에는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등 주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노 회장은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 곧바로 참여해 직접 구조, 구난 활동을 했고,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광주에서 첫 발생했을 때는 '죽음의 공포'를 딛고 모두가 꺼려하는 격리 시설 자원봉사를 자원해 배식, 방역소독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봉사활동을 인정 받아 지역주민의 추대로 월곡2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광주지방검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을 맡아 월곡2동의 다문화 가정의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담당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대통령 표창과 광주시장 표창, 소방방재청장 표창 등 크고 작은 표창도 수없이 받았다.

노한복 회장은 28일 "이제는 봉사 활동이 일상이 돼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며 "월곡 2동의 토박이 파수꾼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억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지역통계 우수사례 선정

광주 광산구는 '광산형 데이터랩 구축 및 개방, 분석 시스템 연계서비스'가 호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한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통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지역통계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남권 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공공데이터 저장소인 '광산형 공공데이터랩'을 구축해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각종 정보시스템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책 개발과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공공데이터랩을 기반으로 안전, 재해 발생현황 및 방재시설 등을 DB(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안전 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진술과 동선의 정확도를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대응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아이맵)'과 연계해 마을안내지도, 데이터의 시각화, 구정홍보자료인 e-book(이-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데이터 분석과 활용은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